

고흥군, 중국 대학생 고흥 농식품 온라인 판매대회 성공적 마무리

비대면 온라인 판매 플랫폼 활용한 중국 로컬시장 공략 공영민 군수 “기존 판매 방식 아닌 새로운 마케팅 필요해”

고흥군은 중국 절강성 원저우시 어우하이구 패션특화단지에서 지난 9월 15일 중국 대학생 고흥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매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2023년 8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치러진 고흥 농식품 온라인 판매대회는 중국 원저우 온라인유통디자인전문대 학생 30여명이 참가해, 중국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웨이디엔’ 내 SNS소핑몰을 활용해 고흥 유자, 김 제품 6개를 판매해 그 실적을 거뒀다.

웨이디엔은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으로 ‘웨이신’을 개발한 텐센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 내 최대 규모의 SNS소핑몰이다. 학생들이 약 한 달간 1만7000\$(한화 2천3백만 원) 매출을 올렸으며, 중국 전역에 3,542건을 판매했고, 중국 32개 성 중 27개성에 골고루 판매해 중국시장 내 고흥 농식품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공영민 군수는 “중국 현지 대학생들의 고흥 농식품 판매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같은 기존 판매 방식이 아닌 새로운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해 다양한 니즈

를 파악해야 고흥의 우수한 농식품을 현지 시장 트렌드에 맞게 판매할 수 있다.”라며, “오늘 이곳에 참여해 준 학생 여러분 이외에도 앞으로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고흥에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대회 6300\$의 매출을 올려 대상을 차지한 판 티엔징은 “이번 고흥 농식품 온라인 판매대회를 준비하며 고흥의 우수한 농수산물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고흥 김은 맛이 고소해 계속 손이 가는 제품이고, 유자는 향이 아주 매력적이라 중국시장에서도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박정운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이번 판매대회에



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중국 로컬시장에 고흥 농식품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지 니즈에 맞게 개선해 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보성웅치울벼쌀 가공 공장 및 종합가공지원센터 준공식 개최

농산물 지리적 표시 제71호 ‘웅치울벼쌀’ 고부가가치화 신호탄



보성군은 지난 14일 웅치면 용반리에서 웅치울벼쌀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의소득 증대를 위해 건립한 ‘보성웅치울벼쌀 가공 공장 및 종합가공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보성농협 문병안 조합장, 울벼쌀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 사업

결과보고, 기념사, 축사, 커팅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보성웅치울벼쌀 가공 공장 및 종합가공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추진해 온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보조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약 30억 원이 들어갔으며, 가공 공장은 부지 900평, 울벼쌀 건조시설 120평, 찹 시설 47평, 종합가공지원센터는 부지 307평, 건축물 104평의 규모로 준공됐다.

종합가공지원센터는 공동이용 가능한 가공 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맞게 가공실, 개발실, 포장실 등의 주요 시설과, 곡물 볶음기, 분쇄기, 쌀과자 기계 등 13종 14대의 장비를 갖췄다.

보성군은 현재 보성웅치울벼쌀 퍼핑(뽕튀기 쌀 모양 간식) 2종, 쌀과자 2종 등 상품화에 성공했다.

보성웅치울벼쌀 종합가공센터는 향후 보성군민과 울벼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양시, 추석 명절 종합대책 시민 홍보 강조

광양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인화 시장 주재로 9월 중 읍면동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본청에서 공유가 필요한 주요 당면사항과 홍보사항을 읍면동에 전달하고 읍면동에서는 주요 현안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본청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제3회 광양 K-POP 페스티벌 개최 홍보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홍보 ▲명절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안내 ▲매실나무 이용 거주살이 시범사업 신청 ▲2023 광양 메타버스 도서관 「도전! 독서골든벨」 개최 ▲“엄마, 아빠 책 읽어

주세요!” 「광양시 어린이 독서 진흥 영상 공모전」 개최 ▲추석 연휴 급수 민원 상황실 운영 안내 ▲‘생각 토크! 함께해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을 전달했다.

읍면동에서는 추석 명절 대비 분야별 종합대책으로 추석맞이 대청결 활동 실시와 명절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공유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정원박람회 성공 사례 공유’ 인기 강사 등극 노관규 순천시장

지자체·기관·단체 특강 요청 줄이어

노관규 순천시장이 생태도시와 정원을 전달하는 인기 강사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노 시장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이후 각종 지자체, 대학교, 기업으로부터 순천시의 정원박람회 성공 사례와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 요청을 잇따라 받고 있다.

노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초청으로 ‘미래서울 아침 특강’에 이어 6월에는 산림청(청장 남성현) 주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 연사로 나선 바 있다.

‘미래서울 아침 특강’은 서울시 간부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의 우수 전문가들을 초청해 해안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기초 지자체장이 연사로 나선 것은 노관규 시장이 처음이다.

노 시장은 여러 특강을 통해 “소득 3만 불 시대의 국민들은 착착한 회색 도시가 아닌 맑고 밝은 녹색 도시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시대적 아젠다를 읽는 리더와 지혜로운 공직자, 품격 높은 시민이라는 삼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대학의 미래를 고민하는 학계에서도 러브콜이 왔다. 7월에는 순천대학교를 방문한 부산 동명대학교(총장 전호환)가, 8월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전광섭)가 노 시장에게 강연을 요청했다.

10월은 경기 여주시와 포천시 등 지자체 강연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개발원에서 전국국회공무원 230명을 대상으로 정원박람회 혁신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CEO가 모이는 행복경영포럼에서도 특강할 예정이다.

노 시장은 줄을 잇는 강연 요청과 벤치마킹에 대해 “앞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도시가 대도시 따라 하기를 멈추고 고유한 특색과 경쟁력을 살려 나가야 한다”면서 “대부분 방향은 알지만, 마땅한 사례가 없던 차에, 이를 조금이나마 보여준 곳이 순천이고 정원박람회이기 때문에 전문 강사도 아닌 저를 감사기도 많은 분이 찾아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개막 이후 안전사고 없이 5개월 만에 600만 관람객을 돌파하는 등 국제행사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순천=김승호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